

지하철 내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오영택

얼마 전까지 지하철 안내방송에 ‘옆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경고방송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미스런 사건이 자주 발생했으면 저런 경고방송을 듣게되는가 하여 민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의 안내방송을 들으니 ‘지하철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경고방송이 아닌 계도방송으로 바뀌어 있었다.

휴대전화사용은 편리함이라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경 시민들은 사스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 문자메세지로 의사전달을 했던 것이다.

휴대전화로 의사표시를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중국에서는 휴대전화가 문화의 한 장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拇指文化(손가락문화)로 명명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쪽 집게로 집어내는 것 같이 실패율이 거의 없다.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면서 마치 서로 끈으로 연결하여 어디서든지 잡아당기기만 하면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화장실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야 직성이 풀린다.

상사한테 결재받으러 오면서도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올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이 1시간여 동안 5~6번 전화를 받는가 하면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니 대화의 단절은 물론 상대방의 눈썰을 찌푸리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통화내용을 상대방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통화함으로써 과사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휴대전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명의 이기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한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알리는 광고가 등장하고 보니 건강에 좋지 않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하철 안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된다.

지하철에서의 계도방송이 있고 난 후에는 전화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아마 어느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써 시끄러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기쁨이나 목소리 큰 우리들에게 휴대전화까지 등장했으니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지하철에서의 계도방송도 사라질 것이며,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